





13. <보기>의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임진년에 입은 은혜는 만세토록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선왕께서 40년 동안 재위하시면서 지성으로 섬기어 서쪽을 등지고 앉지도 않았다. (가) 은/는 배은망덕하여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기미년 오랑캐를 정벌할 때에는 은밀히 장수를 시켜 동태를 보아 행동하게 하여 끝내 전군이 오랑캐에게 투항하여 추한 소문이 사해에 퍼지게 하였다. …… 이에 폐위하여 적당한 데에 살게 한다.

- ①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 ② 청군이 쳐내려와 서울을 유린하자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 ③ 명과 후금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실리정책을 펴 나갔다.
- ④ 인조반정에 의하여 왕위에서 축출되었다.

14.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신축년, 임인년 이래로 조정에서 노론, 소론, 남인의 삼색이 날이 갈수록 더욱 사이가 나빠져 서로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모함하니, …… 서로 혼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당색(黨色)끼리는 서로 용납하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 대체로 당색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미미하였으나, 자손들이 그 조상의 당론을 지켜 200년을 내려오면서 마침내 굳어져 깨뜨릴 수 없는 당이 되고 말았다.

— 이중환, 『택리지』 —

- ① 선조는 붕당을 완화시키기 위해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 ② 서인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렸다.
- ③ 이조전랑 자리를 둘러싸고 서인과 동인의 당파가 형성되었다.
- ④ 북인은 광해군을 추종하는 대북과 영창대군을 추종하는 소북으로 갈렸다.

15. <보기>의 선언을 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윙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경술년 8월 29일은 우리 동지들이 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 사이에 순간의 쉽도 없다. 우리 동지들은 주권을 완전히 상속하였으니 황제권을 소멸한 때가 곧 민권이 발생하는 때요, 구한국 최후의 하루는 곧 신한국 최초의 하루다. ……

- ① 복벽주의를 바탕으로 하였다.
- ② 국민 주권설과 임시 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표방하였다.
- ③ 민족 유일당 운동을 바탕으로 하였다.
- ④ 이 선언을 계기로 남한주의 국민부, 북한주의 혁신 의회로 통합되었다.

16. <보기>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경기감사가 보고하다. “이양선들이 손돌목 쪽으로 접근하므로 광성진에서 먼저 포를 쏘기 시작하였고, 손돌목 포대에서도 역시 이양선을 향해 사격하자, 저들은 우리에게 마구 대포를 쏘면서 거침없이 손돌목을 지나갔습니다. …… 손돌목만한 요해지가 없고 대비도 하였지만 격침시키지 못하고 놓쳐버렸으니 대단히 아쉽습니다.”

— 『고종실록』 —

- ① 조선의 천주교 탄압을 구실로 프랑스 군대가 침공한 것이다.
- ② 양헌수 부대의 활약으로 외적을 격퇴할 수 있었다.
- ③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지게 되었다.
- ④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중요 서적들을 약탈당하였다.

17. <보기>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내부에서 (가) 고시하기를, “이제 단발은 양생(養生)에 유익하고 일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 성상 폐하가 정치 개혁과 국가의 부강을 도모하며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 표준을 제시한 것이다. 무릇 우리 대조선국 백성들은 이러한 성상의 뜻을 우러러 받들되 의관 제도는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 망건은 폐지한다. 1. 의복 제도는 외국 제도를 채용하여도 무방하다.”라고 하였다.

- ①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 ② 군국기무처에서 심의를 하였다.
- ③ 광무개혁이 추진되면서 폐지되었다.
- ④ 제2차 갑오개혁 때 발표하였다.

18.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 영, 소 세 나라 외무장관들의 협의에서 이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하였다.
- ② 이 선거에 반대하는 좌익세력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무장 충돌을 일으켰다.
- ③ 이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④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김구는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